

유럽의 낙농업



축산신보편집국장

張 昌 云

지난7월 프랑스, 영국, 이태리, 서독, 스위스, 네델란드등 구라파7개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한번 훌쩍 둘러보고 유럽의 낙농업을 논한다는것은 사실 무리가 아닐수 없다. 따라서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이 될것같은 심정이 앞서 송구함을 삭일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것은 많은것을 보고 배우고 깨달은 점이다.

특히 실제보지 않고는 상상하기 어려울정도의 끝없이 펼쳐진 초원, 정신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듯한 문화유산, 축산에 임하는 양축인들의 자세등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며 또 감명을 받았다.

보고 느낀점은 사실 그대로 방문국가들의 유산등 문화적인면을 참고로 기술하고 낙농업을 살펴보기로한다.

유럽국가들을 돌아보면서 공동적으로 감탄하고 느낀점은 알려진바와 같이 잘 보존되고있는 사적지와 유물, 그리고 낙농업의 근본이 되고있는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이었다.

영국과 스위스를 제외한 방문국 거의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푸른초원을 이루고 있었으며 간혹 산이 있기는하지만 그 산들은 우리나라의 구룡지 정도로서 얼마든지 개간이 가능한 곳이었다.

이같은 지형여건에다 기후조건도 알맞아 낙농업등 천혜의 축산국으로서 뿐아니라 개간이 가능한 자연적자원이 충분한데 부러움을 사게했다.

또한 축산과도 무관하지만 이들국가들이 보존하고 있는 유적지를 비롯한 유물 작품등 문화유산들을 보고 반만년의역사를 내세우는 우리로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기했으며 현지 안내원들의 설명대로 현대과학도 풀수 없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간략하게 이들국가의 문화적 전통을 소개하면 구라파문화는 한마디로 종교적 건축문화와 대리석(조각등)문화 그리고 그림문화(미술)로 대별할수 있다.

특히프랑스루브르 박물관(Le Musee de Lou ure), 영국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바티칸박물관(Musei dei Vaticano)등 소위 유럽 3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및 미술품등을 보고 그 진귀함과 가치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말로만 듣고 그림으로만 보던 모나리자상을 비롯한 비너스조각상등은 상상 이상의 걸작품임을 실감케했고 다빈치가 10여년에 걸쳐 제작완성했다는 실제사람이 움직이는듯한 성당벽화등은 새로운 예술세계를 깨닫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대영박물관의 경우 부설도서관에 소장된 5백만권의 도서와 유물등을 처분하면 영국국민이 현재의 수준으로 30년동안 일할하지 않고 먹고 살수있을 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하니 과히 그 가치를 짐작할수 있다.

또한 수백년동안 몇세대에 걸쳐 사람이 바뀌면서도 설계변경 한번없이 쌓아 올린로마의 베드로성당을 비롯한 각국의 성당등 고대건물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 섬세했고 수백년전의 건축기술이라는데서 당시 우리나라는 고층집합체 못세운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판세상 같았다.

특히 인상깊었던 유적지는 그리스문화를 가장먼저 받아들여 그리스 다음으로 소위 르네상스의 성지를 창조한 이태리의 폼페이이다.

산타루치아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유명한 나폴리항구에서 동남쪽 22km쯤 가면 폐허한 폼페이시가 그곳이다.

폼페이는 현재 황폐돼 앙상한 돌기둥과 주춧돌 그리고 도로등만 남은 폐허한 도시지만 약2천년전에는 찬란한 문화도시로서 구가한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생각하고 더욱 놀랐다.

인근 베스비오스화산이 폭발, 화산재에뒤덮여 완전 몰락된것을 근세에와서 복원한곳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광장이라든지 동서로

설치된 도로에 이미 우마및 인도가 구분되었는가하면 숙박시설과 그 방에 그려진 벽화, 상수도 시설등은 2천년정의 도시혼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대형경기장, 극장, 목욕탕, 창녀의거리까지등장한 2천년전 이도시의 가장중요한 것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직선대통령을 뽑을 정도로 민주주의 문턱을 두드린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받음과 동시에 인상이 깊었다.

이밖에도 소개할곳은 많지만 지면관계로 기술치 못해 안타깝다.

본론으로 들어가 구라파의 낙농업도 기대했던 만큼의 안정을 누리고 있지는 못했다.

영국농업협회 리처드 (Richad Batlen)부회장의 브리핑과 축산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실제보고 느낀점등을 종합해보면 구라파도 고기소(肉牛)를 비롯한 우유는 과잉생산되어 각국 정부는물론 유럽공동체(EC)에서도 수매비축등에 관여하는등 우리나라 축사현실과 비슷한면을 보이고있었다.

영국의 경우 구주공동체 시장국가중에서 3번째 소고기 생산국으로 뿐만아니라 최근약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젖소사육두수가 3백20여만두로 연간약 1천5백만톤의 원유를 생산(86년말 현재)영국내서 소요되는 유제품 우유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도 원유의 과잉생산이 심각해지자 지난84년부터 계획생산제도를 도입하고 한편 유럽공동체에서도 전체회원국 쿼터량을 배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영국은 또 모든 낙농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되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에의해 생산된 원유를 전량 매입, 공동판매하여 가격 및 물량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있다.

구라파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큰산이 적은데다 초지가능지가 많아 초식가축사육의 적지(適地)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구라파지역은 초지를 위주로한젖소 육우사육에 있어서 질소비료를 많이주고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서독도 마찬가지다. 지난 86년말 현재 젖소사육

농가 호수가 35만5천호이고 (83년 대비 약3만호 감소)경산우두수도 5백41만 1천두로 유우두수는 여타 유럽제국과 같이 매년 줄어들고있는 대신 단위면적당두수를 늘리고있는추세다.

또한 서독은 국민성에서도 잘나타나듯이 모든 제품을 완벽을 기하고 있는데 우유생산도 마찬가지로 질을 높여 양질의 우유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위해 매월3회이상씩 유지방및 단백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기준도 유지방 3.7%, 유단백질 3.3%이상에 가격의 차등을 두고있다.

또한 위생검사도 제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 1등급은 ml당 체세포 30만이하 2등급은 30만이상 50만이하 3등급은 50만이상 75만이하 4등급은 75만 초과로 엄격히 검사하고있어 우리나라는 유지방율만 적용되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점이 아닐수없다.

또 유럽제국들이 공히 생산쿼터량을 EC로부터 배정받고 있는데 반해 서독은 농가에 대한 쿼터량을 연동적으로 실시 엄격한 규제를 스스로 취하고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서독은 농가에 쿼터량을 배정 이를 추가했을 때는 목표가격의 25%를 감한 금액을 지급받게되는등의 불이익이 발생되고있어 초과 생산분은 자가공장에서 가공처리하거나 소비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양축가들이 잘협조하고 있어 별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것이다. 서독등은 그런대로 낙농업의여건이 천혜적이라고 할수있으나 스위스는 좀다르다.

유럽에서 가장국민소득이 높고 알프스산을 연상케하여 아름다운 나라로만 동경되고있다.

뾰족한 산봉우리가 줄지어 있고 융프라우후를 비롯한 고산지는 골마다 호수가있을뿐아니라 정상은 세계 경사지에는 젖소 비육우들이 한가로이 뛰놀고 있는 모습은 한폭의 그림이었다.

경사지는 1백년 가까이 경사도 등급에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간되어 인위적 초지를 이룩한 곳이기때문에 스위스 낙농은 더욱 높이 평가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후가 함께 통하는 융플라우나, 몽블랑등에서도 소들은 볼수있었다.

스위스의 경우 유럽공동체는 아니지만 중립국으로서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에 육박하는 잘사는 나

라, 알프스산맥이 둘러쳐진 유럽의 지붕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낙농이 발전되어도 한계가 있을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제 스위스를 보고나서 세계모범낙농국으로 손색이 없음을 알수있었고 낙농업을 주축으로 한 비육등 축산업의 비중이 1차산업에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경향은 스위스가 어느곳에서나 간질, 호수, 폭포를 볼수있는것과 같이 젖소, 육우등을 어디서나 볼수있는것으로 실감할수있다.

지난85년말 현재 낙농농가가 5만8천1백호로 81년말에 비해 약25%에 해당되는 약2만호가 줄었지만 경산우 두수는 약83두로 우리나라 4만3천농가의 젖소 사육두수 44만두에 비하면 크게 앞지르고 있는데 국토가 우리나라 남한의 반도되지 않는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낙농업이 얼마나 낙후된것인가를 알수있다.

아무튼 유럽제국중 일부지만 몇개국을 둘러보고 기름진땅에 수백km를 달려도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초지를보고 노력만하면 축산의 선진위치를 따라잡을수 없는 북반은 국가들이라는것을 실감했다.

지면관계상 대표적인 몇개국을 소개하고 실제 농가를 방문, 실정을 알아보기로한다.

앞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유럽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선진국들이 축산물의 과잉생산으로 몸살을 앓고있고 그대책 또한 계획생산등 비슷비슷한 정책이고 보면 세계적인 축산업의 시련기인것을 알수있었다.

따라서 실제 구라파축산업의 환경과 운영방법, 축산인들의 의식등을 알아보기위해 7개방문국중 몇곳의 농장을 방문했다.

그중 네델란드 농립성의 추천을 받아규모가 그리 크지않은 네델란드 베릭선사 와우던 베릭에 있는 윌림슨씨 농장을 소개하기로한다.

윌림슨씨 농장은 돼지1백두 젖소35두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이지만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하여 중류급 생활을 하고있었다.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전통적인 서양식 건축의 주택을 갖추고 있어 책에서 보는 한폭의 그림을 연

상케했고 우리농촌과는 대조적인 인상을 받았다.

선천적인 흰 피부색깔의 이곳 농촌사람들은 도시 사람과 다를바 없고 건축양식이 도시와 차이없이 깔끔하고 생활풍습등도 차이가 없을뿐 아니라 도시도 숲이 많아 우리나라와 같은 도농간의 차이는 없었다.

윌림슨씨는 자기농장은 낙농을 주업으로하고있고 양돈은 정부에서 전통양돈농가의 보존을 위해 특별히 지정받아 사육하고 있다고 말하고 때문에 양돈장은 전래의 형태를 꾸며 놓았기때문에 현재 국내 타 양돈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윌림슨씨 돼지우리는 우리나라 재래식 형태와 별로 다른점이 없었다.

우선 양돈장에 들어서면 분뇨냄새가 그렇고 막이통(나무토막), 나무로 만든 칸막이 깔집사용까지 전연차이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소, 돼지, 닭등 재래식 사육방법을 보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줄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윌림슨씨는 또 자신은 젖소35마리에서 하루 두당 18~20kg씩 생산하는데 유럽국가들이 거의 공통되 다시피 우유생산량이 많아 정책적으로 생산을 억제하고 있으며 농장당 생산량이 할당되면 그 이상 절대 생산하지 않고 소를 도태하며 이경우 산유량이 우수한 소도 팔리지 않으면 도축해버릴 정도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할당된 생산량외의 우유가 나올시는 송아지에게 먹이거나 자체에서 소비해버린다고 덧붙였다.

농장 경영도 윌림슨씨와 부인등 두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비싸서 외부인을 고용할 엄두도 못낼뿐더러 모든것이 기계화되어있어 두사람이 관리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가끔 농업계 학생들이 현장에 실습나와 주고있는데 우리가 방문시에도 학생1명이 실습하고있었다.

말이 실습생이지 굶은 일을 도맡아하고있어 고용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실습생도 진지하고 열심이었다. 이들 실습생에게는 정부에서 실습비(용돈정도)를 보조해주고 농장에서는 침식정도 제공만 부담하면되는데 실습기간은 3개월~6개월까지로서 실습을 마치면 자업을하거나 대규모농장에 취직을하게

된다고 윌림슨씨는 말했다.

현재 윌림슨씨는 농장에서 연간 4만길더(1천8백만원)정도의 순이익을 올리게되는데 월로 계산하면 약1백50만원선, 원유도 kg당 약45센트(3백40원)로 우리나라 3백22원보다 오히려 비싼편이고 어린젖소값은 약70만원 착유소는 1백40만원선이라는것(유럽서와 비슷한가격)

물가가 우리나라에 비해 배이상비싼것을 감안하면 소득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것을 알수있다.

윌림슨씨는 네델란드의 축산업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어 이것도 우리나라 축산업과 비슷하게 많은 농가가 축산업에 열을올려 소값 우유값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외국 산축산물이 싼값에 들어오고있어 큰걱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럽방문국의 우유생산량을 소개하면 스웨덴이 우유생산량연간 1천5백4만톤(84년말) 스페인 1천3천3백만톤 △ 서독 2천6백15만톤 등이다.

